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38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2월 21일) 2019년 3월 27일 수요일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사찰명' 복구된다

조계종 · 국토부, 재설치 최종 합의 확인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산사 7곳이 고속도로 표지판에 정식 안내된다. 철거로 논란이 됐던 사찰 표지도 전면 재설치 될 전망이다.

본지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조계종이 요구한 관련 협의안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역시 국토부가 제안한 개선 방향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지난 2017년 10월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사찰 안내 명칭을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삭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도로표지 제작 · 설치 및 관리지침' 상 지역 명소나 사찰, 세계문화유산 등 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도로공사는 이후 고속도로 보조표지판 68개를 철거했다. 이 중 66개가 사찰 안내표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은 '철거 철회'와 '관련 지침 개정'을 골자로 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냈다. 종단의 공식 입장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국가지정문화재를 비롯해 세계문화유산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후 조계종과 국토부는 지난한 협상과 소통을 시작했다. 그 결과물은 3월 14일 열린 국토부의 '도로표지 효율적 안내방안 공청회'서 확인됐다. 이날 국토부는 도로표지판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고속도로 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2017년 불거진 사찰 안내표지판 철거 논란이 최근 해소된 뒤 관계부처가 표지판 개선안을 강구하며 내놓은 성과로 평가된다. 기존에는 고속도로 표지판에서 문화재를 안내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 이번 공청회는 최종 개정안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개선 의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2017년 하반기부터 조계종과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진간 상호 협의과정을 거쳐 입장을 조율했다. 국토부는 리조트, 스키장, 놀이시설 등 일반 관광지들은 안내 가능한 규정이 있지만 우수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세계유산들을 안내할 수 있는 지침이 미비하다는 불교계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였다. 그해 12월 7일, 국토부는 사찰표지 철거를 중단하고 도로표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박문신 국토부 도로운영과 사무관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상당 수가 불교문화재로 비중이 크다. 불교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관계기관, 관련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 끝에 조계종의 입장을 최대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소통 결과 무엇이 달라지나

도로표지 관리지침을 둘러싼 정부와 조계종이 소통을 통해 얻은 소기의 성과는 무엇일까. △철거한 보조표지판 재설치 △기존 세계문화유산과 더불어 신규 등재된 7곳 산사 안내 추가 △사찰 · 문화재 영문표기 통일 등 세 가지다.

장영수 국토부 도로국장은 "외국인 관광객 등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도로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해나가기 위해 지침 개정에 앞서 공청회를 열었다"며 "향후 최종안을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중 도로표지규칙 및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먼저 철거된 사찰 안내표지판은 모두 복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불교 관련 세계유산인 석굴암 · 불국사와 해인사 장경판전에 이어 법주사, 마곡사, 선암사, 대흥사, 봉정사, 부석사, 통도사 7곳까지 도로표지판 공식 안내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표지 개선안 일부.

국토부 공청회서 개선안 공개
세계문화유산 산사 안내 추가
산사명칭 영문표기 기준 정립
"각계 의견 수렴해 최종 확정"

동일지명이지만 서로 다른 영문표기법을 적용했던 문화재명도 통일될 예정이다. 불국사의 경우 'Bulguksa' 'Bulguksa Temple' 등 각기 다른 영문표기법이 혼재돼 있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이 정립됨에 따라 불국사 표기는 'Bulguksa Temple'로 일원화된다.

도로표지 안내에 누락된 원인이기도 한 지침의 제정 · 변경 시기는 놓쳤지만, 조계종이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단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조계종 기획실장 오심 스님은 "관리지침 개정이란 이번 결과는 작지만 의미가 있다. 이전까지 종단은 관련 법령이나 정부와의 대응에 있어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법적 전문지식을 갖춘 불교관련법 제개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만큼 향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 D–47, 봉축 준비 'START'
광명이 충만하길 기원해 본다.
부처님오신날이 두 달 여 남은 가운데, 서울 조계사에는 봉축등 달기가 한창이다. 형형색색으로 장엄된 도량은 부처님이 계신 연화장세계 같다. 저마다의 소원을 담아 건 봉축등에서 나오는 밝은 빛처럼, 부처님오신날을 기해 이 땅에 자비 사진=박재완 기자

올해 봉축 키워드 '전통 · 화합 · 평화'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이 2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불교 각계가 봉축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봉축주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된 만큼 '가족' 그리고 '전통' '화합' 등을 키워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

전통 먼저 부처님오신날의 꽃,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의 연등행렬이 5월 4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어린이와 불자들이 연꽃등, 초롱등, 팔모등, 수박등 등 총 100여 종류의 행렬등을 들고 서울 종로를 아름다운 빛으로 물들인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연등회 취지를 살리기 위해 5월 4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열리는 연등회 1부 행사로 전통풍습인 느티떡 나눔을 설행한다. 또 연등회와 짝을 이뤄 행하는 호기놀이도 함께 진행한다. 부산불교연합회는 이어 5월 12일 오후 4시 송상현광장에서 무차만발공양도 진행한다.

화합 **서울 조계사**는 '우리 모두 하나되어'를 주제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과 어린이, 어르신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참여하는 봉축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조계사는 4월 6일 장애인대법회, 4월 20일 영유아수기법회 '부처님과의 첫만남', 4월 21일 유아 · 어린이 · 청소년연합수계법회 '우리도부처님같이', 4월 21일 3대가 행복한 가족노래 경연대회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연다. 연등회가 펼쳐지는 5월 5일부터 7일까지는 조계사 신도회가 어린이 청소년 포교기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19회를 맞은 난치병어린이 3000배 철야정진을 전국사찰로 확대 시행한다. 4월 27일 오후 7시부터 28일 오전 4시까지 조계사 뿐만 아니라 전국사찰 어디서나 1배당 100원씩 난치병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부를 할 수 있다.

호기놀이 등 풍속 전승
장애인 · 어르신 행사 추진
남북 불교계 봉축점등식도

조계종 중앙신도회 산하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의 경우 문화대축전을 연다. 4월 14일 오후 10시 서울 청계광장에서의 중앙문화축전을 시작으로 4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문화제가 열린다. 이번 지역문화제는 지난해와 달리 시민참여형으로 펼쳐진다. 또 4월 13일부터 4월 27일 15일간 나눔문화캠페인 일환으로 전국거리모금이 300개 사찰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서울 봉은사는 사찰 내에서 특별전시전을 비롯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4월 27일 전통등 전시회를 시작으로, 5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도자기 특별전시전이 열린다. 또 5월 11일에는 템플문화한마당이, 12일에는 미륵전에서 봉축 특별 문화공연도 펼쳐진다.

전북봉축위는 4월 12일 4월 12일 전주역 광장에서 봉축 기원등 점등식을 시작으로 전북어린이 큰 잔치, 임실 6탄약창 연등제, 전북불교합창제, 청소년 모악축제 등을 연다. 특히 올해는 4월 30일 20년에 걸쳐 복원공사를 마무리한 미륵사지 석탑 앞에서 봉축점등식을 개최한다.

평화 남북 불교계의 공동행사도 눈길을 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해 북한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남북 공동발원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조계종 신년기자회견에서 공개된 '평양시내 봉축점등식'도 추진 중이다.

연등회 사무국장 선나 스님은 "이번 봉축주간 펼쳐지는 전통 계승과 창달, 그리고 나눔과 문화행사 등을 통해 사회 곳곳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널리 퍼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